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 확대

-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 대상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 방한 매력도 증진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활성화 기대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하 문체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를 4월 1일부터는 가족, 수행원 등 동반 인원까지 포함하게 된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4년 6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VIP,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24. 10. 17.~)한 제도이다. ’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 마이스(MICE) : Meetings(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전시)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으나, 동반하는 가족, 수행원 등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로 개최된 국제회의는 총 339건,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천 명에 달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향후 상당수 국제회의 참가자와 동반자의 입국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방한 매력도 증진과 함께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이에 수반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대 개선 내용

담당 부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책임자	과장	김태형 (02-2110-4039)
		담당자	사무관	이동용 (02-2110-4045)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웅북합관광과	책임자	과장	김나나 (044-203-2881)
		담당자	사무관	이수진 (044-203-2886)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소비·지출 규모가 큰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간소화를 통한 MICE 방한객 유치 및 재방문 확대

* '24년 6월 경제장관회의 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안건으로 발표·시행

- (운영기간) '24. 10. 17. ~ 계속

구 분	시범운영('24. 10. 17~'25. 9. 30)	정식시행('25. 10. 1.~현재)
지원대상	500명 이상/공사지원 국제회의	300명 이상/국내개최 국제회의
신청방법	유선 신청 및 공문 발송	K-MICE 플랫폼 활용 온라인 신청

- (지원규모)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 중 **5%*** 이내 적용

* 주최기관 · 단체/주요 기업 임원진, 의사결정자·연사 등 VIP 인사

□ 주요 내용

- (개선사항)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 외에, 동반자 (가족, 수행원) 최대 2인까지 적용

- (적용방법) 동반자 신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혼인증명서 등) 또는 **증빙서 대체 확인서**(참가자 서명 필수) 제출

- (운영절차) K-MICE 신청 → 서류제출(법무부) → 입국정보 등록 및 이용

· 대상자 접수 (K-MICE 누리집)	· 서류 검수 · 증빙서류 요청	· 관련서류 제출	· 신청공문 발송	· 입국정보 등록 · 우대 심사 적용
관광공사	관광공사→주최기관	주최기관→관광공사	관광공사→법무부	법무부

□ 기대효과

- 입국 편의 제고를 통한 MICE 참가자 국내 방문 확대
- 방한 매력도 증진으로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